

목어

결식과 남아도는 쌀

참, 세상도 불공평하다. 쌀이 남아돌아 치리가 곤란하다는 지금, 하루 한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 무료 급식소로 떠도는 노인이 있고, 산동네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는 결식아동이 너무 많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었으나 팔고가 없어 논을 밟고 길거리에 버리고 밧데미에 올라앉아 한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하다.

가난한 농민이 1년 내내 뻘뻘하게 지은 쌀 농사는 구제의 대상이 안되고, 시원하고 아늑한 사무실에 앉아서 돈 장사하는 은행이나, 기업체에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9월 말 현재 157조 8,000억 원이나 투입되었다.

전국의 농사꾼이 지은 1년 쌀 농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처럼 헛되게 날리는 공적자금으로 쌀을 사서 끼니를 굶고 배를 움켜쥐고 서러움에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루 한끼 밥이라도 제대로 먹도록 해주었으면 그들은 이겨울 얼마나 따뜻하고 세상을 고마워할까?

풍년이 들어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처치 곤란하다고 연일 방송하면서 끼니를 굶고 있는 국민들의 처참한 모습들은 보고도 못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체 단편 부리며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세금만 서로 나눠먹고 있는 정치인이나 국가 관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도 무심하단 말이 허공에 그저 메아리쳐질 뿐이다.

<법구경>에 있는 말이다. "선량한 사람을 때리거나 죄 없는 자를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화가 열 곱이 되어 돌아오고, 재앙을 가져오는 원수가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날 것이다."

돈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 듣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배부른 사람에게 고급요리를 대접하기보다 배고고 있는 이들에게 한 끼 배불리 먹여주는 공덕이 더욱 수승하리라. 단언히 정부에서 책임져야겠다. 있는 곳에 더 갖다주느라 바쁜 정부에서 못한다면 나 자신부터라도 힘닿는 만큼 아사구제에 힘써봅시다.

법산(통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뺨를 갈아도 못값을 은혜”

법전 스님 (해인총림 방장)



立雪忘勞斷臂求(입설망로단비구)러니 覓心無處始心休(먹심무처시심휴)라. 後來安坐平懷者(후래안좌평회자)여 粉骨亡身未足酬(분골망신미족수)로다

눈 속에 서서 피로움을 잊고 팔을 끊어 구했지만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비로소 마음 편했네. 그 후에 편안히 앉아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이, 뺨를 갈아 보답해도 다 못 값을 은혜일세.

공안을 세 토막 사까래 밑의 여섯 자 자리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흑산구굴(黑山窟) 속에서 헤아리고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별과 따짐으로 이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 흡사 김씨 집안에서 이씨 문종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斷臂難於立雪難(단비난어인설난)이라 覓心無處始心安(먹심무처시심안)이로다. 誰知真項蘆花境(수지만경로화경)에 一於翁把釣竿(일어옹파조간)이리요.

팔 끊기는 눈 속에 서 있기보다 더 어렵거늘, 마음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였네. 만경의 끝없는 갈대밭 속에 도사린 어부마다 낚싯대 가진 줄 누가 알았으랴.

“한치 세월도 헛되이 말고”

초우 스님 (영축총림 부방장)



日月似電光(일월사전광) 光陰良可惜(광음량가석) 生死在呼吸(생사재호흡) 難以保朝夕(난이보조석) 海와 달은 번갈고 갈아서 세월을 참으로 아껴야 하나니라 삶과 죽음은 호흡 사이에 있나니 아침과 저녁을 보장하기 어렵도다 行住坐臥間(행주좌와간) 寸景莫虛擲(촌경막허적) 勇猛加勇猛(용맹가용맹) 如俄本師釋(어아본사석)

다니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면서 한치 세월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용맹정진에 다시 용맹정진을 더하되 우리의 본사인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할지니라 (중략) 本來面目誰(본래면목수) 纓拳箭沒石(쟁권전멸석) 疑團百雜碎(의단백잡쇄) 一物蓋天翳(일물개천벽)

본래의 면목이 무엇인가를 되풀이 화살이 순식간에 돌을 뚫듯해서 의심명어가 산산이 부서지면 한 물건이 하늘을 덮어 푸르리라 했습니다.

“태양이 구름뚫고 나오니”

원담 스님 (덕속총림 방장)



昨夜三更惡風雨(작야삼경악풍우) 今日降伏道場中(금일강복도량중) 忽逢飛輪出塵垢(忽逢비륵출진구) 好看松菊滿園清(호관송국만원청)

어젯밤 삼경 비바람 모질더니/오늘은 도량에 비가 내리네/문득 태양이 구름뚫고 나오니/소나무 국화향이 들에 가득하네. (중략)

春樹不依懶亂慣(춘수불휴뇌란관) 日出不落萬象現(일출불락만상현) 日月萬象同一體(일월만상동일체) 牛鼻無孔竟何處(우비공무어처) 春樹(춘수가) 심없이 어지러히 흔들림에/해가 나와 지지 않고 一萬象(일만상)이 나타난다/日月(일월)과 온갖 象(상)은 한 몸인데/없는 牛鼻孔(우비공)을 어디에서 찾으려 하고!

若將心識度我宗(약장심식도오종)하면 恰似西行却向東(恰似西行却向東)이라 揉輪面皮親見徹(여륜면피친견철)하라 團團紅日上孤峰(단단홍일상고봉)하리라 만악 알음알이로 불법을 알자 하면/서쪽을 가면서 동쪽을 향하는 것과 같다/얼굴 가죽을 확 벗기고 철저히 보라/등글고 등근 해가 산마루에 오를 것이다. (중략)

금일 결재대중은 나무칼로 무쇠소를 집듯 철저한 의심으로 공부하면 금년 30일에는 틀림없이 은산철벽(銀山鐵壁)이 무너질 것이다. 천복산 고봉스님께서는 “철질을 공부해서 깨치지 못하면 내가 거짓 말한 죄로 발설지옥에 간다”고 다짐하셨으니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잠깐이라도 화두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석옥 청공 선사께서는 “산함락일반번홍(山含落日半邊紅)이라. 산에 지는 해를 먹음에 반쪽만 붉다.”고 했으니 그 뜻이 무엇인고? 대중은 한마디 이르라.

“空道の 무상 정등각 성취”

덕암 스님 (태고총림 방장)



但莫是非(단막시비)하고/勇猛精進(용맹정진)하며/正念修行(정념수행)하여/見性成佛(견성성불)하라. (중략) 석가세존은 물론이거니와 역대 조사가 정념(正念)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고 무념(無念)으로 종(宗)을 삼아 견성성불(見性成佛)하였음은 임제승풍(臨濟僧風)의 특색이요, 태고 종조께서 석옥 청공 선사로부터 부촉받은 정등법맥이 확실하다. (중략)

신사년 10월 보름달은 석가세존을 위시하여 역대 선 조사(祖師)가 한결같이 시(時)와 공(空)을 초월하여 교시(敎示)하고 실천공행(實踐公行)하신 공도(空道)의 무상 정등각을 성취하고자 다짐하는 날이로다. 인연근기(因緣根機) 따라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되는 정안종사(正眼宗師)가 많이 배출되어 법륜상전(法輪常轉) 불일증취(佛日增輝)하는 경사가 있기를 바라노라.



태고종 제22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운산 스님.

“내분 상처 빨리 씻고 수행풍토 조성 역점”

태고종 제22대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의리분

태고종 제83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출석총회의원 만장일치로 제22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운산스님의 첫 일상은 종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사과였다. 스님은 “그동안의 혼란에 대해 어른 스님들과 종도들에게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 원치 않은 사태였지만 자신과 종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빠른시일내 종단이 제자리를 찾도록 종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내분 사태로 우려곡절 끝에 원장에 선출됐는데 소감은 “비운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이번 사태를 종단이 발전하는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겠다. 부중수교의 마음으로 종단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겠다.”

◆태고종 내분 사태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종단 사태로 인해 종도들에게는 자괴감을, 대외적으로는 태고종의 명예가 크게 실추돼 마음이 아프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감정문제는 회석시키고 종원총합의 기초위에서 화합의 방법을 모색하겠다.”

“종단제도개혁 틀 내년 1월말 완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태고종의 과제는.

“1일 3시간 이상의 실참을 하도록 종단 전체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솔직히 태고종은 자기 수행 부분이 취약했다. 대각선운옹”을 전개하여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능력을 배양하고 신도들은 생활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풍토 조성역점을 돌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종단 제도개혁의 틀을 완성해 이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도 화합 차원에서 단행하겠다.

능력있고 교화와 포교에 적극적인 스님들을 많이 기용해 움직이는 종단으로 거듭 태어나야 태고종이 살 수 있다. 지방교구를 활성화하고 지방교구에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이다. 총무원회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기획과 복지 등 대사회적 사업을 총괄하고 승적업무 등은 교구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또 종단운영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종단재정을 확보하면서 교구별로 특성을 살려 수익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조계종과의 분규사찰 문제는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서로 상생(相生)하는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를 잘 살리면 서, 또 한국불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운산 스님은 성북동 총무원청사가 원래 연수원으로 건립된 것이라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 청사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te@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54년 10월 15일 장안 동쪽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주필: 김명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93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93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목조각에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 성불 조각원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문의전화: 033-263-1102 •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